

4 뉴스

문화대학 선거절차 논란 '문득' 선본은 중도 사퇴

장비슬 기자 eva6155@knu.ac.kr

【서울】 문과대학(문화대) 보궐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해 '문득' 선본은 운동본부(선본)가 지난 26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문화대 보궐선거에는 이번에 사퇴한 '문득'과 '정도' 두 개 선본이 출마한 바 있다. 이 중 '정도' 선본 공보단장이던 A 씨는 지난 25일 사퇴를 선언하며 개인 SNS 계정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선본 원의 신분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학과 유권자의 권리를 침

해한 점 ▲선관위가 양 선본의 시행 세칙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점 ▲선관위가 위반사항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에 '문득' 선본은 지난 26일 후보자 등록 사퇴서를 제출했다.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도" 측에서 유착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며 "선거를 강행해 우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문과대학 내에 갈등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문화대 보궐선거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그러나 양 선본 모두 글자 수를 초과해 입후보 등록원을 제출했지

부터 31일로 보궐 선거 기간과 하루 겹치게 됐다. 춘계 답사는 사학과 재학생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학과 학생들은 다른 유권자들과 달리 이틀만 투표가 가능하다. 문과대학 보궐선거 1차 긴급 회의 당시 '정도' 선본은 온라인 투표 방안을 제시했지만 선관위에선 사학과에 투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문득' 선본 역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선관위는 "재정 문제와 더불어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투표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돼도 무리 없다"고 답변했다.

선관위가 양 선본의 세칙 위반 사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던 점도 드러났다. 문과대 학생회 선거시행 세칙 4장 15조에 의해 공약은 30자 이내로 총 5개 이내만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양 선본 모두 글자 수를 초과해 입후보 등록원을 제출했지



문화대학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사진=대학주보 DB)

만 선관위의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도' 선본은 자격 심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제 요청 서류를 제출한 반면 '문득' 선본은 그 후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았다. '문득' 선본은 "공약 이름을 3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석했다"며 "1차 회의 당시 선관위의 요청으로 구제 요청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도' 선본은 '문득' 선본의 선거 운동 규칙 위반이 제대로

징계처리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득' 선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시 추가 텍스트 금지' 조항을 두 차례 어겼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한 차례의 경고만 부여했다. 선관위는 2차 긴급 회의에서 해당 징계에 대해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해 1차 경고를 주의로 완화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선거시행세칙 30조에 따르면, 선관위 심의와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에 대해 강화 내지 완화를 할 수 있다.

사퇴한 '문득' 선본은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바라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적으로 선관위와 친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 공고가 올라가면서부터 개인적인 연락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유착 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제55대 문과대 보궐선거는 31.08%로 마감돼 30일 18시 30분까지 투표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축구부 개막전 1:2 패

최예령 기자 herry2020@knu.ac.kr

【국제】 2023 KUSF 대학축구 U-리그(U-리그)가 지난 17일 개막했다.

이날 용인미르보조구장에서 열린 홈 개막전에서 우리학교는 배재대에 1:2로 패했다. 우리학교는 전반전 27분 배재대 권형준 선수와 34분에 배재대 강민서 선수에게 골을 허용했다. 이어 후반전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으나 종료 직전에 터진 이호연(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의 골로 0패를 면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2023 U-리그는 승강제를 도입한 두 번째 시즌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2022년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승강제를 도입했다. 올해는 1부 36개 팀과 2부 48개 팀, 총 84개 팀이 2023 U-리그에 참가했다. U-리그에 처음 참가하는 연성대학교와 청운대학교는 2부에 배정됐다. 6개 팀이 승격 및 강등되는 구조로 1부는 각 권역 최하위 4개 팀을 포함해 차하위 중 승점이 낮은 2개의 팀은 2부로 강등된다. 이어 2부 리그의 각 권역 1위 6개 팀은 1부 리그로 승격된다. 1부 1~4권역별 우



축구부가 U리그 홈 개막전에서 아쉽게 패했다.

(사진=체육부 제공)

승팀의 경우, 토너먼트로 왕중왕전을 치른다.

올해 우리학교는 ▲작년 정규리그 준우승팀 아주대 ▲제58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및 전국 체전 우승팀 울산대 ▲제17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우승 및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팀 한남대를 비롯해 ▲건국대 ▲배재대 ▲동의대 ▲안동과학대 ▲영남대가 속해 있는 1부 4권역에 배정됐다. 우리학교는 지난 U-리그에서 권역 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7 U-리그와 2018 U-리그에서는 권

역 1위를 차지했다. 2020년도에는 왕중왕전에서 3위에 오른 바 있다.

축구부는 지난 2020학년도부터 모집인원이 줄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올해는 작년보다 여건이 더 어렵다"면서 "축구팀은 약 30명의 선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17명이라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학교의 레벨이 있고 이번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2부로 강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래도 선수가 있든 없든 상위권에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4일 진행된 안동과학대와의 경기에 이어 축구부 홈경기는 ▲4월 7일(울산대) ▲4월 21일(건국대) ▲5월 26일(영남대) ▲6월 9일(안동과학대) ▲6월 16일(아주대) ▲9월 15일(동의대) ▲10월 27일(한남대) 용인미르보조구장에서, 원정경기는 ▲3월 31일(아주대) ▲4월 14일(동의대) ▲5월 19일(한남대) ▲6월 2일(배재대) ▲9월 8일(울산대) ▲9월 22일(건국대) ▲11월 3일(영남대)에 예정돼 있다.

국제캠 보궐선거 마무리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nu.ac.kr

【국제】 2023학년도 학생회 보궐선거 개표가 완료됐다.

개표 결과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학생회] 선거본부(선본) ▲건축공학과 박세우(건축학 2018) 정후보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장동혁(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9) 정후보 ▲중국어학과 [청설] 선본 ▲스포츠지도학과 공태현(스포츠지도학 2017) 정후보, 김나윤(스포츠지도학 2020) 부후보 ▲골프산업학과 [NICE BUDDY!] 선본 ▲한방생명공학과 [한울] 선본 ▲응용화학과 [평형] 선본 ▲전자공학과 [공·백] 선본 ▲생체의공학과 [READY] 선본이 당선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16개 학과를 대상으로 했다. 투표는 1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득표율이 과반이 되지 못한 선거구는 24일까지 연장 투표를 실시했다.

▲러시아어학과 ▲산업디자인학과 ▲Post-Modern 음악학과 ▲유전생명공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와 ▲식품생명공학과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한다.